

『화순옹주가례등록(和順翁主嘉禮謄錄)』에 나타난 가례 절차와 물목 연구

김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Procedures and Items for Royal Wedding Ceremonies of Princesses on 『Hwasunongju-garyedeungrok(和順翁主嘉禮謄錄)』

Jiyeon Kim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received date: 2015. 2. 9, revised date: 2015. 3. 23, accepted date: 2015. 4. 7)

ABSTRACT

This article studied the procedures and items used in royal princess weddings by examining 『Garyedeungrok(嘉禮謄錄)』 which describes Princess *Hwasun*(和順翁主, 1720-1758)'s wedding in 1732. This was the first wedding by a princess during King *Yeongjo*(英祖)'s reign. Preparation for the wedding was made based on the previous weddings of royal princesses, but it did not follow the old tradition. The wedding costs were cut down, and it was done in a simpler way than before. However, the simplification of elaborate wedding outfits were not part of this change as ceremonial robes such as *No-ui*(露衣), *Jangsam*(長衫) and *Chopo*(綃袍) were used without much alteration. The wedding ceremony of Princess *Hwasun* shows the transition process from the royal princess wedding ceremony traditions and rituals in the late 17th century to 『*Gukhonjeongrye*』, which emerged and became solidified as a new social norm in the 18th century. A legitimate royal princess and a de facto princess from King's concubine were hardly different when it came to their royal outfitting but the disparity in social status between the two was found in the materials used to make clothes for their respective husbands. Princess *Hwasun*'s wedding procedure shown in 『*Garyedeungrok*』 is similar to that of 『*Gukjo-orye-ui*(國朝五禮儀)』: *Napcha*(納采), *Nappye*(納幣), *Chinyeong*(親迎), *Dongro*(同牢), *Hyeongugo*(見舅姑), *Hyeonsadang*(見祠堂), and *Seojohyeon*(壻朝見). But 『*Garyedeungrok*』 deals with the procedures of *Gantaek*(揀擇), *Buma-guanrye*(駙馬冠禮), and *Seonon*(宣醮), which are not included in 『*Gukjo-orye-ui*』, and also with the process of preparation for wedding items and the information of related people. However, it is hard to learn about its specific shapes and features because it is often restricted to lists such as a list of clothing. Collecting new materials and an in-depth and succeeding study are required in the future.

Key words: *Garyedeungrok*(가례등록), *Hwasunongju*(화순옹주), King's son-in-law(부마), princess(왕녀), royal princess wedding(왕녀 혼례), wedding costume(혼례복)

I. 서론

조선의 가례(嘉禮)는 국가 전례(典禮) 중 최고의 경사이자, 유교 사상에 입각한 의례적 관념이 반영된 호화로운 행사였다. 그간 조선 왕실의 가례 복식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보면 주로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와 같은 왕실 기록물에 나타난 왕이나 왕세자 가례를 고찰한 것이 많으며, 근래에 나오고 있는 『가례등록(嘉禮贈錄)』을 중심으로 한 왕자·왕녀 가례 복식 연구(Ahn, 2015; A. Kim, 2013; G. Kim, 2013; Lee, 2009; E. Lee, 2012)는 대부분 특정한 대상이나 시기 혹은 절차·물품 상 일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제외된 다른 왕자녀 가례에 관한 개별적인 재검토와 종합적 연구가 계속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1732년에 거행된 화순옹주(和順翁主, 1720-1758) 가례 시 기록된 『화순옹주가례등록』¹⁾을 중심으로 가례의 절차와 소요된 물품을 살핀 것이다. 『가례등록』은 왕실 혼례의 주무관청인 예조(禮曹)에서 주로 작성하고 정리한 왕실 혼례의 실무 자료라는 성격을 갖는다. 『화순옹주가례등록』은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의주(儀註)와 홀기(笏記)로 마무리된다. 그 외에 개인이 작성한 사기(私記)²⁾가 있는데, 사기가 어떤 기록인지 자세하지는 않으나, 아마도 간택부터 친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던 관리가 작성한 기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짐작된다. (Sim, 2013)

화순옹주 가례는 영조 재위 초기에 치러진 첫 왕녀 가례이다. 『화순옹주가례등록』은 『화평옹주가례등록』과 더불어 영조 대의 왕녀 가례등록 중 가장 상

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화순옹주 가례 때는 『국혼정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므로 가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종종 경신년(1680), 갑신년(1704), 병술년(1706) 전례(前例)를 참조하라는 기록이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壬子, 1732) 10월 20-21일 기사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각각 명안공주(明安公主) 가례, 연영군(延昞君, 英祖) 가례, 연령군(延齡君) 가례와 연결된다. 따라서 화순옹주 가례를 살피는 것은 영조대 옹주 가례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 중후기 왕자녀 가례의 규모와 시대에 따른 변화 과도기적 양상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은 대체로 문헌을 통한 비교 고찰이다. 우선 『화순옹주가례등록』을 해석하고 각 절차에 따른 의례와 소요된 물품을 파악한 후, 『화순옹주자가례시일기(和順翁主自家吉禮時日記)』의 내용과 상호 비교 검토하였다. 이 자료의 제목은 『옹정십년임자십이월 길례시자초간택위시일기(雍正十年壬子十二月 吉禮時自初揀擇爲始日記)』인데, 충남 예산의 김정희(金正喜)의 고택(古宅)에서 발견되었으며 후에 원문(原文)은 소실되었다고 한다. (Kim, 2007) 김정희는 화순옹주의 남편인 월성위 김한신의 증손이다. 『화순옹주자가례시일기』를 파악하기 위해 1985년 12월 충남향토연구회에서 발간한 『향토연구』 3집에 실린 간택일기 국역본 및 원문 사본(Kim, 1985)을 이용하였다. 그 밖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의궤(儀軌)』와 『등록(贈錄)』,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方定例)』 등 여러 왕실 기록들과 비교하고, 관련 회화와 유물을 참고한 후 종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사용된 자료인 『옹정십년임자십이월 길례시자초간택위시일기』는 편의상 원문 초입에 기록된 『화순옹주자가례시일기』로 대신하여 기재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화순옹주 가례의 배경

화순옹주는 숙종 46년(1720) 영조가 왕자로 있을 때 정빈 이씨(靖嬪 李氏, 1694 - 1721) 사이에서 태어

1) Lee (2013)에 따르면 『화순옹주가례등록』은 현재 장서각에 2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K2-2731은 마이크로필름 형태이고, K2-4836은 사본의 형태이다. 그러나 이들 2종의 등록은 같은 책으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에서 K2-2731을 주로 고찰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K2-4836을 아울러 내용 확인하였다.

2) 和順翁主嘉禮贈錄 壬子(1732) 8月 28日 初揀擇時學條私記, 揀擇時學條及賞物私記; 壬子(1732) 10月 29日 納采日舉行節次私記; 壬子(1732) 11月 初8日 納幣日舉行節次私記; 壬子(1732) 11月 25日 命服內出時節次私記; 壬子(1732) 11月 29日 親迎日節次私記.

난 둘째 딸이며,³⁾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의 누이이다. 『영조실록(英祖實錄)』 영조 1년(1725) 2월 18일, 영조 8년(1732) 11월 29일, 영조 34년(1758) 1월 17일 기사들에 따르면, 화순옹주는 영조 1년(1725)에 봉호를 받고, 영조 8년(1732)에 13살 동갑인 김한신(1720-1758)에게 하가하였다. 영조 34년(1758)에 남편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1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화순옹주 가례 준비와 관련하여 『영조실록』 영조 4년(1728) 1월 5일, 영조 8년(1732) 8월 18일의 기사를 보면, 영조 재위 초기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계속된 흉작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곤궁한 상황이었고, 왕실에서는 탄일·정조·동지 때 대궐에 진상하는 방물(方物)을 삭감하게 하는 등의 경비 절감을 실천하여 민폐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조실록』 영조 7년(1731) 8월 3일 기사에서 이덕수(李德壽)가 아뢰길, 옹주(翁主)들이 이강(釐降)할 때 여러 혼구(婚具)를 간략하게 하는 것이 검소함을 밝히고 흉년을 구제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영조실록』 영조 8년(1732) 7월 4일 기사에서 조한위(趙漢緯)가 이르길 옹주(翁主)의 혼례(婚禮)를 거행하는데 이송(釐送)하는 범절을 되도록 간략하게 하는 것이 흉년을 구제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한 일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6년 뒤에도 『영조실록』 영조 14년(1738) 4월 19일 기사에서 대사간 김치후(金致厚)가 상소하기를, 화평옹주(和平翁主) 가례를 준비하는데 화순옹주 때와 같이 간소하게 하시라 아뢴 대목을 보면, 화순옹주 가례에서 혼례 비용을 줄였던 경험이 다음 옹주 가례를 준비하는데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영조실록』 영조 24년(1748) 8월 2일 기사에서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이 말한 대목을 보면, “내가 귀주(貴主)들의 혼인에 매양 주혼(主婚)하여 왔는데, 화순옹주가 하가할 때의 의물을 내가 관주(館主)가 되었을 때에 견주어 보면 열 배나 더 풍성하였다.”고 하니, 당시에 과연 실질적으로는 열

마나 적극적인 감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영조 대는 조선조의 각종 전례들이 새롭게 정비되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전례서가 간행된 시기다. 이들은 결국 당대에 각종 전례를 구현하면서 얻어진 역사적 경험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후 의례의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조 대의 첫 왕녀 가례인 화순옹주 가례를 살피는 것은 이 시기 국가 전례의 방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도일 것으로 사료된다.(Lee, 2013)

Ⅲ. 가례 절차와 물품 고찰

1. 전반적 특성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왕녀하가의(王女下嫁儀)에 기록된 왕녀 가례 절차는 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동퇴(同牢)의 사례(四禮)로 나타나지만, 『가례등록』에는 사례 이외에도 금혼(禁婚)·부마관례(駙馬冠禮)·명복내출(命服內出)·현구고(見舅姑)·현사당(見祠堂)·서조현(婿朝見)과 같은 세부 절차가 아울러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가례의 전 과정과 일정은 <Table 1>과 같으며, 금혼부터 친영까지 1년이 넘게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왕녀가 하가할 때는 덕망 있는 종친(宗親)이 임금을 대신하여 주혼(主婚)이 되었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10월 9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8년(1732) 11월 20일 기사에 따르면, 화순옹주 가례의 주혼은 처음에는 밀창군(密昌君) 이직(李穡)이었으나, 납폐 이후에 밀창군의 여식이 죽어 상을 당한 까닭에, 장계군(長溪君) 이병(李秉)으로 변경되었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11월 21일 기사를 보면, 장계군은 명복내출부터 친영까지 가례를 주관하였다. 또한 궐 밖에 옹주궁(翁主宮)과 부마가(駙馬家)라는 두 개의 별궁(別宮)을 정하여 예식을 진행하였는데,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9월 16일 ‘길례양궁택정(吉禮兩宮擇定)’에 의하면 화순옹주 가례 때 옹주궁은 장의동(壯義洞) 숙빈사우궁(淑

3) 화순옹주의 언니인 화억옹주(和憶翁主, 1717-1718)는 어려서 요절하였다.

<Table 1> Princess *Hwasun's* Wedding Procedure (1731-1732, lunar calendar)

1731 [신해]	1732 [임자]										
10.20	8.28	9.4	9.11	10.17	10.29	11.8	11.25	11.29	11.30	12.1	12.2
<i>Geum-hon</i> [금혼: 禁婚]	<i>Cho-gan</i> [초간]	<i>Jae-gan</i> [재간]	<i>Sam-gan</i> [삼간]	<i>Bumagan</i> - <i>gwanrye</i> [부마관례: 駙馬冠禮]	<i>Nap-chae</i> [납채: 納采]	<i>Nap-pye</i> [납폐: 納幣]	<i>Myeongbok-naechul</i> [명복내출: 命服內出]	<i>Chinyeong</i> [친영: 親迎]. <i>Dongroe</i> [동뢰: 同牢]	<i>Hyeon-gugo</i> [현구고: 見舅姑]	<i>Hyeon-sadang</i> [현사당: 見祠堂]	<i>Sejo-hyeon</i> [서조현: 壻朝見]
	<i>Gantaek</i> [간택: 揀擇]										

(*Hwasunongju-garyedeungrok*, 1732)

嬪(嬪宮), 부마가는 제생동(濟生洞) 밀창군가(密昌君家)로 정해졌다. 숙빈 사우궁은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의 사당을 모신 곳으로 짐작된다. 『화평옹주가례등록(和平翁主嘉禮贈錄)』 무오(戊午, 1738) 3월 11일, 『화협옹주가례등록(和協翁主嘉禮贈錄)』 계해(癸亥, 1743) 4월 12일, 『화완옹주가례등록(和緩翁主嘉禮贈錄)』 기사(己巳, 1749) 5월 16일 기사에서처럼 화평·화협·화완옹주 가례 때 옹주궁을 장의동(壯義洞) 영빈방(映嬪房)으로 정한 것을 보면, 당시 옹주궁은 주로 왕실의 외가(外家)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부마가는 주로 종친의 집으로 정해졌다.

<Table 2>와 <Table 3>은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9월 11일 ‘길례시물건(吉禮時物件)’과 ‘각사소장물목질(各司所掌物目秩)’에 나타난 화순옹주와 월성위 복식을 1680년 명안공주 가례 및 1749년 『국혼정례』와 비교 정리한 것이다. 『국혼정례』를 보면 공주와 옹주 가례에서 적서(嫡庶)의 차별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인 빙재(聘財)에서 나타날 뿐,⁴⁾ 복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순옹주 가례가 명안공주 가례를 참고하여 진행되었지만, <Table 2>에서 보이는 공주·옹주 물목 수량의 차이는 적서의 차별이기보다 시기에 따른 변화로 생각된다. 그러나 <Table 3>의 부마 복식의 경우는 공주 부마가 정 1품, 옹주 부마는 정 2품이었으므로 관등에 따른 복식 재료의 세부적 차이가 발견된다.

<Table 2>와 같이 옹주 의복 물목은 총 18건(27

점)으로, 크게 분류하면 수식류 4건(6점), 의복류 8건(15점), 대류 2건(2점), 신발 2건(2점), 기타 2건(2점)으로 나타난다. 수식류로는 대요 2, 마리사기 2, 청초립 1, 면사 1이 마련되었으며, 가칠보장금장갑·진주금채와 같은 비녀, 너울, 수파에는 감부표(感付標)가 붙었다. 절감된 너울은 화완옹주 가례 때 이르러 회복된 것이 『화완옹주가례등록』 기사(1749) 3월 5일 기록으로 확인되며, 『국혼정례』에도 너울이 발견된다. 『숙안공주가례등록(淑安公主嘉禮贈錄)』 경인(庚寅, 1650) 8월 15일 ‘물목(物目)’을 보면, 수파는 이미 숙안공주 가례 때부터 생략되어 왔으므로, 화순옹주 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화평옹주가례등록』 무오(戊午, 1738) 3월 6일 ‘길례시물목(吉禮時物目)’과 『화협옹주가례등록』 계해(癸亥, 1743) 4월 7일 기사에 의하면, 청초금도다이진주장립은 화평옹주 가례 때는 없어졌다가, 화협옹주 가례 때 진주 장식이 생략된 제도로 나타났다. 『국혼정례』에서 청초립으로 규정되었다.

옹주 의복류로는 노의 1, 장삼 1, 중삼 1, 활한삼 2, 저고리 4, 치마 2, 호수 2, 삼아 2가 마련되었다. 『화순옹주자가길례시일기』 보면, 상의원에 전달한 의차물목 중에 다홍화문필단(多紅花紋疋段) 1필이 포함되어 있다. 1727년 효장세자(孝章世子) 가례의 기록인 『진종효순후가례도감의궤(眞宗孝純后嘉禮都監儀軌)』 ‘상의원선진배질(尙衣院先進排秩)’에서, 빈궁(嬪宮)의 노의와 장삼에 다홍화문필단(大紅花紋疋段)이 각각 23자 6치, 20자 5치 소요되었던 것을 보아, 다홍화문필단은 옹주의 노의나 장삼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을

4) 공주의 빙재는 면포(綿布)와 정포(正布)가 각 100필이고, 옹주는 각 50필이다.

〈Table 2〉 Comparison of Wedding Costumes for Princess

Costumes		Wedding of Princess <i>Myeong-an</i> (1680)	Wedding of Princess <i>Hwasun</i> (1732)	Costumes of Princess [옹주의복: 翁主衣服] in <i>Gukhonjeongrye</i> (1749)	
Head dress	<i>Gachilbo-geumjangjam</i> [가칠보장금장잠: 假七寶粧金長簪]	1	0 (removed)	-	
	<i>Jinju-geumchae</i> [진주금채: 眞珠金釵]	1	0 (removed)	-	
	<i>Daeyo</i>	<i>Jara-daeyo</i> [자라대요: 紫羅]	1	1	1
		<i>Hongra-daeyo</i> [홍라대요: 紅羅]	1	1	1
	<i>Marisagi</i>	<i>Jara-marisagi</i> [자라마리사기: 紫羅首沙只]	1	1	1
		<i>Hongra-marisagi</i> [홍라마리사기: 紅羅首沙只]	1	1	1
	<i>Acheongsa-supu</i> [아청사수파: 鶻靑紗首把]	0 (removed)	0 (removed)	-	
	<i>Joragyeopneoul</i> [조라겹너울: 皂羅袂汝火]	1	0 (removed)	1	
	<i>Cheongchogeumdoda-ikjinjujangrip</i> [청초금도다익진주장립, 靑綃金都益眞珠粧笠]	1	1	<i>Cheongchorip</i> [청초립: 靑綃笠] 1 (removal of pearl decoration)	
	<i>Pildanbolkki</i> [필단볼끼: 匹段甫乙裏]	1	1	<i>Jaekgwangjeokbolkki</i> [자적광적볼끼: 紫的廣的甫乙裏] 1	
<i>Jikgeumnamsadanjeonmyeonsa</i> [직금남사단전면사: 織金藍紗單前面紗]	1	1	1		
Clothes	<i>Hwangsa-wonmundaehongpildanno-ui</i> [황사원문대홍필단노의: 黃絲圓文大紅匹單露衣]	1	1	<i>Daehong-gwangjeokdanno-ui</i> [대홍광적단노의: 大紅廣的單露衣] 1	
	<i>Daehongpildan-gyeopjangsam</i> [대홍필단겹장삼: 大紅匹段袂長衫]	1	1	<i>Daehong-gwangjeokgyeopjangsam</i> [대홍광적겹장삼: 大紅廣的袂長衫] 1	
	<i>Acheongrajungsam</i> [아청라중삼: 鶻靑羅中衫]	1	1	-	
	<i>Chohwalhansam</i> [초활한삼: 綃闊汗衫]	2 (reduced from 3 to 2)	2	<i>Baekchohwalsama</i> [백초활삼아: 白綃闊衫兒] 2	
	<i>Mal-gun</i>	<i>Pildandanmalgun</i> [필단단말군: 匹段單裯裙]	1	0 (removed)	<i>Baekleungdanmalgun</i> [백릉단말군: 白綾單裯裙] 1
		<i>Saengcho-malgun</i> [생초말군: 生綃裯裙]	1 (reduced from 2 to 1)	0 (removed)	
	<i>Jeogori</i>	<i>Sipseungjuyu-jeogori</i> [십승주유저고리: 十升紬襦赤古里]	3	3	<i>Nokjuyujeogori</i> [녹주유저고리: 綠紬襦赤古里] 2

Costumes		Wedding of Princess Myeong-an (1680)	Wedding of Princess Hwasun (1732)	Costumes of Princess [옹주의복: 翁主衣服] in Gukhonjeongrye (1749)
	<i>Namju-geopjeogori</i> [남주겹저고리: 藍袖袂赤古里]	1	1	1
Chima	<i>Sipseungjuyu-chima</i> [십승주유치마: 十升袖襦赤尔]	2	1 (reduced from 2 to 1)	<i>Namjuyuchima</i> [남주유치마: 藍袖襦赤尔] 2
	<i>Sipseungjugyeopchima</i> [십승주겹치마: 十升袖袂赤尔]	2	1 (reduced from 2 to 1)	<i>Namjugyeopchima</i> [남주겹치마, 藍袖袂赤尔] 2
	<i>Sipseungjuyuhosu</i> [십승주유호수: 十升袖襦胡袖]	2	2	<i>Chorokjuyuhosu</i> [초록주유호수: 草綠袖襦胡袖] 2
	<i>Jeongjusama</i> [정주삼아: 鼎袖衫兒]	2	2	<i>Baekjeongjusama</i> [백정주삼아: 白鼎袖衫兒] 2
	<i>Guseungjuyugae-o</i> [구승주유개오: 九升袖襦蓋襖]	2	2	<i>Baekjeongjuyugae-o</i> [백정주유개오: 白鼎袖襦蓋襖] 2
Ni-ui	<i>Sipseungjugyeopni-ui</i> [십승주겹니의: 十升袖袂裏衣]	1	0 (removed)	<i>Baekjeongjugyeopni-ui</i> [백정주겹니의: 白鼎袖袂裏衣] 1
	<i>Sipseungjudanni-ui</i> [십승주단니의: 十升單裏衣]	1	0 (removed)	<i>Baekjeongjudanni-ui</i> [백정주단니의: 白鼎單裏衣] 1
Belt	<i>Hongrageumdoda-ikdae</i> [홍라금도다익대: 紅羅金都多益帶]	1	1	1
	<i>Namradae</i> [남라대: 藍羅帶]	1	1	1
Shoes	<i>Ungpi-onhye</i> [웅피온혜: 熊皮溫鞋]	2	2	<i>Heuk-ungpi-onhye</i> [흑웅피온혜: 黑熊皮溫鞋] 1
etc.	<i>Hongraoji</i> [홍라오지: 紅羅五脂]	1	0 (removed)	-
	<i>Jikgeumjinnjujangseonja</i> [직금진주장선자: 織金眞珠粧扇子]	1	1 (removal of pearl decoration)	-

(Hwasunongju-garyedeungrok, 1732)

것으로 추정된다. 『국혼정례』 때는 필단이 광적으로 바뀌어 간소화되었다.

명안공주 가례 때와 비교하면, 화순옹주 때의 예복이나 상의류는 대부분 명안공주 가례 때의 것을 거의 그대로 따랐으나 하의류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즉 말군과 니의를 없애고 치마는 2벌만 마련하였다.

평상복보다는 노의·장삼 등과 같은 예복의 간소화가 가례 비용 절감에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지만, 예복을 제외하면 하의류가 저고리에 비해 옷감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국고 절감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화평옹주가례등록』 무오(1738) 3월 6일 '길례시물목', 『화협옹주가례등록』 계해(1743) 4월 7

일, 『화완옹주가례등록』 기사(1749) 3월 5일의 기사들에 따르면, 화순옹주 가례 이후에 화평옹주·화협옹주 가례 때는 치마도 감축되었고, 화완옹주 가례 때 다시 치마가 나타났다. 『국혼정례』에는 남치마숨·겹 각 2벌로 규정되었다. 말근은 『국혼정례』 때 훗 1벌로 나타나고, 니의는 명안공주 때와 같이 겹·훗 각 1벌로 규정되었다.

〈Table 3〉과 같이 부마 의복 물품을 크게 분류하면 관모류 4건(4점), 대류 3건(3점), 의복류 7건(15점), 신발 3건(4점), 기타 1건(1점)으로 나타난다. 관모류로는 복두·사모·소오건·망건이 마련되었다. 이 중에 망건은 의복 물품에서 옥관자를 갖추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각사소장물목질(各司所掌物目秩) 상의원(尙衣院)’을 보면 옥관자를 금관자로 대신하였고 관자를 만드는데 황금 1량 5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叢稿)』 ‘망건환제변증설(網巾環制辨證說)’에 따르면 “2품관은 견우화양(牽牛花樣)·매화양(梅花樣)·고화양(瓜花樣)·쌍리(雙螭)의 금관자를 한다.”고 하였으므로, 『화순옹주가례등록』에 기재된 금관자는 정 2품 옹주 부마의 신분 에 맞는다. 1680년 명안공주 가례 시 부마 관자의 재질이 옥으로 기록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에 공주 부마와 옹주 부마는 관자 재질에서 분명한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혼정례』에서는 공주 부마, 옹주 부마 모두 금관자로 규정되어 있다.

의복류로는 초포(綃袍)·단령(團領)·더그레[加文刺]·액주름[腋注音]·과두(褰肚)·삼아(衫兒)·바지[把持]·호슬(護膝)이 마련되었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11월 25일 ‘명복내출시절차사기(命服內出時節次私記)’에 따르면, 초포는 부마의 명복(命服)이다. 『화순옹주자가길례시일기』 중 상의원에 전달한 의차 물품에 ‘대홍남경초(大紅南京綃) 1필, 남남경초(藍南京綃) 1필’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홍남경초는 다홍화사(多紅禾紗)로, 남남경초는 남화사(藍禾紗)로 대신한다는 주가 달려 있어 주목된다. 남경초는 『국혼정례』에서 대군과 왕자의 초포에 사용되는 옷감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화순옹주자가길례시일기』에 나타난 남경초도 부마의 초포를 만드는데

소요된 옷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남경초를 화사를 대신한다는 대목에서, 평직인 초를 익조직인 사로 대치한다는 것이 국혼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로 비춰지지는 않아 의문시된다. 당시 남경초가 수입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직물에 대한 규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경초의 대응으로 거론된 화사는 『연잉군관례등록초건(延昞君冠禮時贈錄草件)』 갑신(1704) 2월 4일 기사에 의하면 일찍이 왕자의 직령과 관복에 사용되었던 소재로도 기록된 바 있다.

단령은 십승주점겹단령과 면포겹단령이 각 한 벌씩 준비되었는데,⁵⁾ 『국혼정례』를 보면 부마의 단령 두 벌이 모두 공복임을 알 수 있다. 더그레·액주름·과두는 숨과 겹 각 1벌씩 장만되었다. 상의는 총 2벌로 장삼아와 단삼아가 있었고, 바지는 총 3벌로 숨·겹·훗 각 1벌씩 마련되었다. 허리띠는 관복에 착용하는 품대·품속대 외에 광다회도 발견되며, 광다회의 토환 장식은 명안공주 때와 마찬가지로 제거되었다. 『국혼정례』에는 광다회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데, 광다회는 사대부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었으므로 국고(國庫)에서 별도로 장만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화는 정(精)과 흑사피투혜(黑斜皮鞋鞋)를 갖춘 흑사피화와 연녹피화 각 1부인데, ‘각사소장물목질’를 보면 이들을 백양모정(白羊毛精)을 갖춘 흑괘자피화(黑麀子皮靴) 2부로 대신하라고 하였다. 퀘자피는 노루 가죽을 말하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제주목(濟州牧)’에 의하면 퀘자피는 제주에서만 나며 가죽이 세밀하고 질겨 가죽신을 만들 만하였다고 한다.

화순옹주 부마의 복식은 명안공주 가례 때와 비교하면 관자와 호슬 등을 제외하고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국혼정례』 때는 부마 의복에서 초포를 비롯하여 과두·삼아·바지·광다회 등과 같은 평복에 이르기까지 생략되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

5) 『화순옹주가례등록』과 『국혼정례』에는 ‘十升紬粘袂綿布團領各一’로 기록되어 있으나, 『숙안군주가례등록(淑安郡主嘉禮贈錄)』 기축(己丑, 1649) 4월 16일 ‘물목’을 보면 이전에 행해진 옹주 의빈 의복 물품에 ‘十升紬粘袂團領一, 綿布袂一’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십승주점겹단령과 면포겹단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Wedding Costumes for King's Son-In-Law

Costumes		Wedding of Princess <i>Myeong-an</i> (1680)	Wedding of Princess <i>Hwasun</i> (1732)	Costumes of King's Son-in-law [옹주부마의복: 翁主駙馬衣服] in <i>Gukhonjeongrye</i> (1749)	
Head dress	<i>Bokdu</i> [복두: 幘頭]	1	1	1	
	<i>Morasamo</i> [모라사모: 毛羅紗帽]	1	1	<i>Morasamo</i> [모라사모: 冒羅紗帽] 1	
	<i>So-ogeon</i> [소오건: 小烏巾]	1	1	1	
	<i>Mang-geon</i> [망건: 網巾]	1 with <i>Okgwanja</i> [옥관자: 玉貫子]	1 with <i>Okgwanja</i> [옥관자: 玉貫子] ▶ replaced with <i>Geumgwanja</i> [금관자: 金貫子]	1 with <i>Geumgweonja</i> [금원자: 金園子] & <i>Yeongja</i> [영자: 纓子]	
	<i>Heukjeonrip</i> [흑전립: 黑氈笠]	0 (removed)	0 (removed)	-	
	<i>Samsipjukheukchorip</i> [삼십죽흑초립: 三十竹黑草笠]	0 (removed)	0 (removed)	-	
Clothes	<i>Chopo</i> [초포: 綃袍]	1	1	-	
	Danlyeong	<i>Sipseungjujeomgyeopdanlyeong</i> [십승주접단령: 十升紬粘袂團領]	1	1	<i>Daehongjujeomgyeopdanlyeong</i> [대홍주접단령: 大紅紬粘袂團領] 1
		<i>Myeonpo-gyeopdanlyeong</i> [면포겍단령: 綿布袂團領]	1	1	<i>Daehongnyeonpojeomgyeopdanlyeong</i> [대홍면포접단령: 大紅綿布粘袂團領] 1
	Deogeure	<i>Sipseungjuyudeogeure</i> [십승주유더그레: 十升紬襦加文刺]	1	1	<i>Chorokjuyudeogeure</i> [초록주유더그레: 草綠紬襦加文刺] 1
		<i>Sipseungjugyeopdeogeure</i> [십승주겍더그레: 十升紬袂加文刺]	1	1	<i>Chorokjugyeopdeogeure</i> [초록주겍더그레: 草綠紬袂加文刺] 1
	Aekjureum	<i>Sipseungjuyu-aekjureum</i> [십승주유액주름: 十升紬襦腋注音]	1	1	<i>Chorokjuyu-aekjureum</i> [초록주유액주름: 草綠紬襦腋注音] 1
		<i>Myeonpogyep-aekjureum</i> [면포겍액주름: 綿布袂腋注音]	1	1	<i>Baekmyeonpo-aekjureum</i> [백면포액주름: 白綿布腋注音] 1
	Gwadu	<i>Sipseungjuyu-gwadu</i> [십승주유과두: 十升紬襦裹肚]	1	1	-
		<i>Sipseungjugyeopgwadu</i> [십승주겍과두: 十升紬袂裹肚]	1	1	-
	Sama	<i>Jeongjujangsama</i> [정주장삼아: 鼎紬長衫兒]	1	1	-
		<i>Jeongjudansama</i> [정주단삼아: 鼎紬短衫兒]	2	1	-
	Baji	<i>Sipseungjuyu-baji</i> [십승주유바지: 十升紬襦把持]	1	1	-
		<i>Sipseungjugyeopbaji</i> [십승주겍바지: 十升紬袂把持]	1	1	-
<i>Sipseungjudanbaji</i> [십승주단바지: 十升紬單把持]		1	1	-	
	<i>Juhoseul</i> [주호슬: 紬護膝]	0 (removed)	1	-	

Costumes		Wedding of Princess Myeong-an (1680)	Wedding of Princess Hwasun (1732)	Costumes of King's Son-in-law [옹주부마의복: 翁主駙馬衣服] in <i>Gukhonjeongrye</i> (1749)	
Belt	<i>Seokcheongjeongdae</i> [석청정대: 錫靑鞞帶]	1 replaced with <i>pumsokdae</i> [품속대: 品束帶]	1 replaced with <i>Pumdae</i> [품대: 品帶] ▶ <i>Hakjeongdae</i> [학정대: 鶴頂帶]	1 replaced with <i>pumdae</i> [품대: 品帶]	
	<i>Hyangsokdae</i> [향숙대: 香束帶]	1 replaced with <i>pumdae</i> [품대: 品帶]	1 replaced with <i>Seosokdae</i> [서속대: 犀束帶]	1 replaced with <i>Seosokdae</i> [서속대: 犀束帶]	
	<i>Hongsa-gwangdahoe</i> [홍사광다회: 紅絲廣多繪]	1 removal of <i>Chageo-tohwan</i> [차거토환: 碾磑吐環]	1 removal of <i>Chageo-tohwan</i> [차거토환: 碾磑吐環]	-	
Shoes	<i>Hwa</i> , [화: 靴] with <i>Jeong</i> [정: 精]	<i>Heuksapihwa</i> [흑사피화: 黑斜皮靴]	1	1 ▶ replaced with <i>Heukgwejapi</i> [흑계자피: 黑麋子皮]	1
		<i>Yeonrokipihwa</i> [연록피화: 煙鹿皮靴]	1	1	1
		<i>Heuksapituhye</i> [흑사피투혜: 黑斜皮套鞋]	2	2	2
		<i>Ungpisaphye</i> [웅피삼혜: 熊皮鞞鞋]	1	1	<i>Heuk-ungpisaphye</i> [흑웅피삼혜: 黑熊皮鞞鞋] 1
etc.	<i>Sang-ahol</i> [상아홀: 象牙笏]	1	1	1	

(Hwasunongju-garyedeungrok, 1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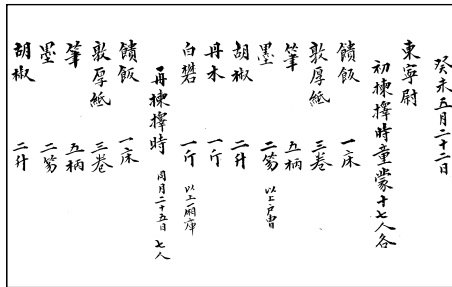
을 볼 수 있다.

2. 절차 과정과 사용된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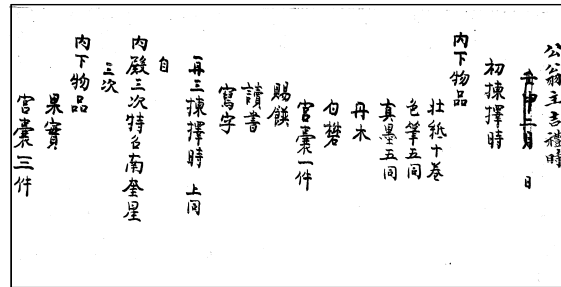
1) 간택(揀擇)

간택은 가례를 치르기 위해 여러 후보자를 대궐 안에 모아놓고 왕실에서 직접 심사하여 가장 적합한 인물을 가려 뽑는 제도이다. 왕녀 가례에서 부마 삼간택의 기록은 선조(宣祖) 대 이후에 발견된다. 이극익(李克翼, 1736-1806)의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혼례(婚禮)'에 따르면, 이튿날이 여러 날에 걸쳐 여자 한 사람을 위해 나라 안의 사내아이들을 모두 모아 놓고 세 차례에 걸쳐 간택하는 일은 예외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으나 왕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니, 이 시기에 왕녀 가례에서 삼간택의 절차는 이미 정착되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신해(1731) 10월 20일 '금혼(禁婚)'에 의하면 이 날 화순옹주 가례를 위한 금혼령이 내려졌으며, 전국의 15세 이하 동몽(童蒙)의 관례(冠禮)와 혼사(婚事)를 금지하였다. 금혼의 연령은 다음 해에 다시 규정되어, 13세 이상 15세 이하로 정해진 사실이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8월 6일 '부마간택연령정한(駙馬揀擇年歲定限)'에서 확인된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신해(1731) 10월 23일 '허혼오조(許婚五條)'에 나타난 금혼에 제외되는 조건은 ① 국성(國姓, 전주 이씨), ② 관적(貫籍)이 다른 이씨 성, ③ 당대(當代) 성이 다른 8촌의 친척, ④ 과부의 아들, ⑤ 후취자(後娶者), 이상 전례에 따른 다섯 조항 이외에도,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8월 6일 '경외봉단정일(京外捧壇定日)'를 보면 ⑥ 가장(家長)이 상중(喪中)인 자, ⑦ 형체(形體)에 병이 있는 자, ⑧ 출계자(出繼子: 다른 집안에 들어가는



<Fig. 1> Gift Lists for King's Son-In-Law Candidates
(*Bumagantaekgi*, n.d.)



<Fig. 2> Gift Lists for King's Son-In-Law Candidates
(*Gong-ongju-gilchalsi-naeha-mulpum*, n.d.)

양자)로 이미 입안(立案)된 자, ⑨ 외방향품(外方鄉品)의 집안, ⑩ 첨사(僉使)와 만호(萬戶)의 부류, 이상의 다섯 조항이 새로 추가되어 이 안에 포함되는 동몽은 모두 허혼(許婚)하였다. 이후에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가 없는 사람, 후처의 소생도 단자를 받았는데, 이는 명안공주 가례 때의 전례에 준한 것이었으며, 『영조실록』과 『화순옹주가례등록』 입자(1732) 8월 7일 기사에서 확인된다.

금혼에 해당되는 전국의 동몽들은 왕실에 사주 단자를 올리는 봉단(奉單)을 하였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입자(1732) 8월 7일 기사에 봉단식(奉單式)이라 하여 단자를 쓰는 양식이 나타나 있다. 단자가 모두 접수되면, 단자를 올린 동몽들을 대상으로 삼간택이 이루어졌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입자(1732) 8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초간택에 올린 동몽의 수는 84명이었다. 『화순옹주자가길례시일기』 8월 28일 기사에 따르면 초간택 때 내전에서 동몽들에게 식사와 다과를 내렸는데, 동몽들은 영화당(映花堂)의 보계(補階)에 올라가서 입참 전에 구용재(九容齋)에서 다과를 대접을 받고, 식사는 국왕을 모신 어전에서 받았다고 한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입자(1732) 8월 28일 기사를 보면 동몽들에게 감[梨柿]·꿩고기[雉炙]·응이죽[薏苡粥]·잡탕(雜湯) 각 한 그릇을 내렸다. 1906년 순종(純宗)의 황태자 가례 때 직접 겪은 상궁들의 증언에 따르면, 간택 후보들에게 음식을 내리는 풍습은 국말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Kim, 1987) 음식 외에도 간택에 참석한 동자들에게는 지필묵 등의 상격(賞格)도 내려졌다. 물목을 살펴보면,

초주지 1권, 백면지 2권, 후추[胡椒] 2되, 백반(白攀) 1되, 필묵(筆墨)이다.⁶⁾ 『화순옹주자가길례시일기』 9월 4일 기사를 보면, 9월 4일 재간택 때도 차담(茶啖), 반상(飯床), 상격(賞格)은 초간택과 동일하였다. 간택 시 동몽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Fig. 1>과 <Fig. 2>의 조선 말기 「궁중발기」에서도 확인된다. 내용을 보면 각각 계미년, 임신년의 기록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시기에 해당되는 왕녀 가례를 살펴보면 <Fig. 1>은 1823년 명온공주(明溫公主) 가례, <Fig. 2>는 1872년 영혜옹주(永惠翁主) 가례와 연결된다. 물목은 대부분 화순옹주 가례 때와 비슷한데, 영혜옹주 때는 문방구류 외에 궁낭(宮囊) 3건도 발견된다.

『화순옹주자가길례시일기』에 의하면 삼간택은 9월 11일 창경궁(昌慶宮) 통명전(通明殿)에서 이루어졌고, 3명의 후보 중에 부마로 낙점된 김한신은 내전에서 새 의복으로 갈아입고 다과를 대접받은 후 언해(諺解)를 갖춘 소학(小學) 1질(秩)과 지필묵을 하사 받았다. 삼간택 후 부마가 갈아입은 의복이 자세하게 어떤 것인지 기록상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화순옹주가례등록』과 『화순옹주자가길례시일기』 입자(1732) 9월 11일 기사에 따르면, 부마가 궁에서 나와 본가에 돌아갈 때 안룡(鞍籠)이 전도(前導)하고 대전별감

6) 『화순옹주가례등록』에는 '초주지 1권, 백면지 2권, 후추 [胡椒] 2되, 백반(白攀) 1되, 필묵(筆墨)'이라 하고, 『화순옹주자가길례시일기』에는 '삭지(朔紙) 1권, 백면지(白綿紙) 2권, 후추[胡椒] 3되, 풍월묵(風月墨) 2정, 황필(黃筆) 5명'이라 하여 두 기록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백반이나 후추와 같은 일부 물목에서 다소 차이도 보인다.

10명과 각 전에서 별감 5명씩과 내수사(內需司)의 서원(書員)과 각 궁의 임원, 당궁(唐宮) 임원, 그리고 의빈부(儀賓府)의 하인이 함께 모시고 따랐다. 아직 가례를 치르지 않았지만, 부마의 신분으로 특별하게 대우받았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이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9월 28일 ‘부마위호봉작(駙馬尉號封爵)’에 의하면, 이 날 김한신은 월성위(月城尉)로 위호가 정해지고 초직으로 중 2품인 순의대부(順義大夫)를 임명받았다. 『경국대전』 ‘의빈부(儀賓府)’를 보면 옹주 부마는 정 2품이지만, 중 2품으로 첫 벼슬을 받는다고 하였다. 납채 이전에 왕실의 일원으로서 관례(冠禮)를 치르기 위해 우선 도위(都尉)에 봉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신분상승을 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명복내출 이전이라도 부마 관례를 치르기 위한 여러 물품이 관례 전에 미리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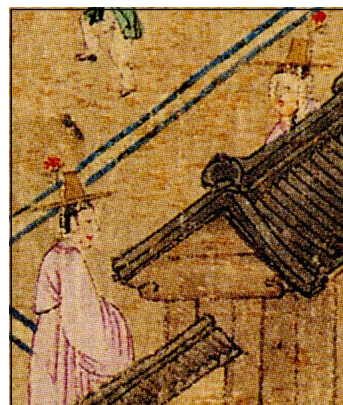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8월 13일 ‘초간택일자급복색지위(初揀擇日字及服色知委)’에 나타난 간택 후보의 복식을 보면 분홍직령(粉紅直領)에 세조대(細條帶)를 매고, 부전(付鈿)을 하고, 다리에 행전(行纏)을 차고 흑혜[黑鞋子]를 신었다. 부전은 곧 수식(首飾)이고 속칭 당머리[唐麻里]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머리모양인지 알 수 없다. 『왕세자가례등록(王世子嘉禮贈錄)』 을해(乙亥, 1696) 4월 2일 기사

에 나타난 경종 왕세자 관례 시 초출 복식을 보면, 경술년(1670) 숙종 왕세자 관례의 예에 따라 쌍동계(雙童髻)·옥잠(玉簪)·아청직령(鴉靑直領)·도대(條帶)로 하였고, 『영조실록』 영조 3년(1727) 8월 20일 기사를 보면 효장세자(孝章世子) 관례 시 초출복도 역시 아청직령과 도대로 간택인의 복식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화순옹주 가례 시 간택인들 또한 미성년자로서 쌍동계에 편복 차림을 했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Lee (2012)에서는 쌍동계에 모단(冒緞)을 사용하였다는 『상방정례』 기록을 근거로, 부전이 좁은 의미로는 쌍동계에 사용된 땁기에 부착된 장식, 넓은 의미로는 장식 달린 땁기를 사용한 쌍동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Fig. 3>의 활옷에 시문된 동자 문양과 유사한 차림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연소자가 분홍 옷을 입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었다. 이익(李瀾,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僊說)』 ‘홍의초립(紅衣草笠)’를 보면 고려 말기에 분홍 옷을 입은 세도가의 아이들을 분홍방(粉紅房)이라 비꼬아 지칭했던 일을 서술하면서, “초립과 분홍 옷은 모두 연소자의 복장으로서는, 오랜 풍속이 되어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재물의 낭비가 많으니 없애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당시 연소자가 분홍 옷에 초립(草笠)을 쓰는 풍속이 만연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Fig. 3> Boy Pattern in *Hwal-ot* [활옷]
(Left: Kwon, 2009, p. 140.
Right: Painted by Researcher)



<Fig. 4> Young Men in a Pink Coat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p. 113.)

<Fig. 4>의 조선 후기 회혼례첩에서도 분홍 포에 초립을 쓰고 집안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 남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 부마관례(駙馬冠禮)

『국조오례의』와 많은 유교적 의례서는 관례와 혼례와는 별개의 의례로 다루고 있으나, 실제로 왕실의 관례는 혼례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혼인 절차에 포함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금혼령을 내릴 때 관례도 함께 금한 것은 이미 정혼(定婚)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였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가례 전에 왕자나 부마의 관례는 있지만 왕녀의 관례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행연구(Kim, 2009; Kim, 2010)에 따르면 왕이나 왕세자의 배우자가 될 여성은 간택을 받은 후 대례를 올린 후에 관례를 치렀는데, 여성의 경우 15세를 성년에 적합한 나이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혼례 당시 13세였던 화순옹주는 가례를 올리고 2년 후에 관례를 올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입자(1732) 10월 17일 ‘부마관례(駙馬冠禮)’에 의하면 월성위의 관례는 납채 12일 전인 10월 17일에 본가(本家)에서 치러졌다.

『화순옹주가례등록』 ‘부마관례시의절(駙馬冠禮時儀節)’에 기록된 부마의 관례복을 보면, 초가(初加)에 소오건(小烏巾)을 쓰고 청단령(靑團領)에 도대(條帶)를 띠고, 재가(再加)에 사모(紗帽)를 쓰고 흑단령에 품대(品帶), 삼가(三加)에는 복두(幘頭)를 쓰고 홍공복(紅公服)과 서숙대(犀束帶)·흑화자(黑靴子)를 착용하였다. 초출복(初出服)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머리에 쌍동계를 하고 간택 때와 같은 분홍 직령을 다시 입었거나, (Lee, 2012) 또는 삼간택 직후 궁에서 새로 받아서 입고 나온 옷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영조실록』 영조 18년(1742) 3월 26일 기사에서 사도세자 입학례 때 “태학(太學)에 나아가 학생의 옷으로 바꿔 입었는데[仍服學生服], 청금(靑衿)·연두건(軟頭巾)·세조대(細條帶)을 갖추고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부마의 초가복으로 마련된 청단령·오건·도대는 곧 학생의 옷에 비견됨을 알 수 있다. 오건은 물목에서 소오건으로 나오는데, 검은색의 작은 건으로 이해될 뿐 당

시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숙종인경후가례도감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肅宗仁敬后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廳儀軌)』 ‘상의원차직진배질(尙衣院次知直進排秩)’과 『진종효순후가례도감의궤(眞宗孝純后嘉禮都監儀軌)』 ‘상의원선진배질(尙衣院先進排秩)’을 보면, 1671년 숙종 왕세자 가례와 1727년 효장세자 가례에서 왕세자의 소오건(효장세자 가례에서는 소오관)을 만드는데 조라(阜羅)·아청사(鴈靑絲)가 소요된 기록이 있고, 『명은공주가례등록』 ‘각사소장물목질’ 계미(癸未, 1823) 7월 ○일 기사에 나타나는 부마 소오건은 영자(纓子)가 있고 속칭 치포건(縹布巾)이라 하여 19세기에는 소오건이 곧 치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단령과 함께 사용된 도대는 물목에서 광다회와 연결된다. Lee (2012)에 따르면 단령에 실뿔을 두른다면 세조대보다 광다회를 두르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한다. 광다회는 붉은 색으로 하였고, 차거토환 장식은 생략하였다. 토환은 허리띠 앞에 장식된 띠고리(7)이고, 차거는 『월인석보(月印釋譜)』 27장에서 칠보(七寶) 중 하나로 언급된 조개의 일종이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하일기(熱河日記)』 ‘고려주(高麗珠)’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진주를 보배롭게 여겨서 고려주(高麗珠)라 부르고 있다. 빛이 희맑기가 차거(砵磬)와 같으며...”라고 하여 진주의 광택을 차거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부마의 광다회에서 차거토환을 제거한 것은 이미 1650년 숙명공주(淑明公主) 가례 때부터 나타나며, 『숙명공주가례등록(淑明公主嘉禮謄錄)』 임진(壬辰, 1652) 3월 24일 ‘물목’에서 확인된다.

재가복인 흑단령(黑團領)은 물목에 보이지 않는다. 『화순옹주가례등록』 ‘각사소장물목질, 상의원’을 보면 서숙대(犀束帶)와 함께 학정대가 명시되어 있어, 옹주 부마의 품대가 곧 학정대임을 알 수 있다. 『상방정례』 ‘의빈의복’에 따르면 학정대 1부를 만드는데

7) Suh (2003)에 따르면, 토환은 도환(條環)이라고도 쓰고 『노걸대(老乞大)』에서 토환, 토환이라 언해되었는데 『노박집람(老朴集覽)』에서 구자(鉤子)의 모양과 같다고 하였다. 또한 Lee & Song (2012)에 의하면 조선 전기 무인석상 중에서 철릭을 입고 토환을 교구(鉸具)로 장식한 허리띠를 찬 모습들이 발견되었다.

〈Table 4〉 Comparison of Coming-of-age Ceremony Costumes

Procedure	Prince <i>Yeonlyeong</i> (1706)	King's son-in-law <i>Wolseong</i> (1732)
<i>Choga</i>	<i>Osamo, Heukdanlyeong</i>	<i>So-ogeon, Cheongdanlyeong, Dodae</i>
<i>Jaega</i>	<i>Bokdu, Gongbok</i>	<i>Samo, Heukdanlyeong, Pumdae</i>
<i>Samga</i>	<i>Yang-gwan, Jobok</i>	<i>Bokdu, Hong-gongbok, Seosokdae, Heukhwaja</i>

(*Yeonryeong-gun-gwanryedeungrok*, 1706; *Hwasunongju-garyedeungrok*, 1732)

학정전(鶴頂錢)·십품은(十品銀)·도황금(鍍黃金)·수은(水銀) 등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연잉군관례등록초간』 계미(癸未, 1703) 12월 13일과 갑신(甲申, 1704) 2월 4일 기사를 보면, 왕자 초가복인 흑단령에 금린(金麟) 흉배를 부착하였으므로, 월성위의 재가복인 흑단령에도 아마 부마의 지위에 맞는 흉배를 달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규합총서(閨閣叢書)』 ‘아국흉비슈품 문관’에는 부마 흉배로 금학(金鶴)을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다.

삼가복은 복두와 공복의 차림이다. 물품을 보면 주점검단령이 있는데, 『상방정례』 ‘의빈의복’에서 대홍색 수주(水紬) 길감에 남색 수주 내공(內供)으로 기록된 점을 볼 때 홍공복임을 알 수 있다. 서숙대(犀束帶)는 곧 공복용 야자서대(也字犀帶)로 보이는데, 옹주 부마의 신분인 2품관의 야자금대(也字金帶)가 아닌 것이 특이하다.

이와 같이 부마 관례복의 양상은 초가에서 학생의 옷, 재가에서 관리의 상복, 삼가에서 당상관의 공복으로 승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Table 4〉와 같이 병술년(1706년) 연령군 관례 시 관례복과 비교해 보면, 왕자의 경우는 상복→공복→조복으로 변화하고 있어 관례복의 구성에서 왕자와 부마의 신분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청단령과 흑단령은 의빈 의복 물목에서 보이지 않는데, 관례 전에 별도로 사여 받았거나 집안에서 마련했을 가능성도 있다. (Lee, 2012)

3) 납채(納采)

납채 의식은 신랑 집에서 정식으로 신부 집에 정식으로 청혼(請婚)하는 서신(書信)과 함께 신랑의 사주단자(四柱單子)를 보내는 것이다. 화순옹주 가례에서 월성위의 사주는 이미 간택 때 제출되었으므로,

납채 때는 채서(采書)만 부마가에서 옹주궁으로 보냈다. 채서를 받은 옹주궁에서는 부마가로 복서(復書)를 보냈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10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월성위는 본가(本家)에서 관례를 치르고, 납채 4일 전인 10월 25일에 부마가인 밀창군가로 이동하였으며, 납채는 10월 29일 미시(未時)에 거행되었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9월 20일, 10월 10일, 10월 25일 기사를 보면, 채서와 복서는 본청에서 마련되었는데, 채복서를 쓰는 서사관(書寫官)은 아들 많고 복 있는 사람이 맡도록 하였고, 채복서를 들고 이동하는 부지제원 역시 아들 많고 풍채 좋은 사람으로 정해졌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10월 25일 기사에 의하면, 서사관이 25일에 본청에 나아가 채복서를 바르게 쓰면 가함에 넣어서 어람(御覽)한 후, 납채 때 부마가와 옹주궁으로 전해졌고, 양궁의 주혼들이 채복서에 수결(手決)하였다. 『화순옹주가례등록』 ‘각향행례홀기 납채일’을 보면, 납채 때 수행인원은 건복(巾服)을 입었고, 의식을 진행하는 관원들은 흑단령을 입었다. 관원들이 부마가 외선온(外宣醞)과 옹주궁 내외선온(內外宣醞)에 참석할 때는 흑단령에서 홍단령으로 갈아입었다.

납채의 과정은 민간 혼례와 차이가 없지만, 채서와 복서를 중앙에서 주관하여 쓰게 하고 임금이 살핀 후에 양가의 주혼이 수결하였다는 점이 민간 혼례와 큰 차이점으로 파악된다. 납채서를 쓰고 전달하는 관원까지도 아들 많고 복 있는 사람으로 선별한 것을 보면, 가례의 모든 각각의 절차를 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겼는지 짐작된다.

4) 납폐(納幣)

납폐는 부마가에서 왕녀궁으로 혼인의 징표인 예물(禮物)을 보내는 의식으로, 납폐 10일 후인 11월 8일 오시(午時)에 거행되었다. 현(玄)으로는 아청색(鴉青色) 토주(吐紬) 3필을, 훈(纁)으로는 대홍색(大紅色) 토주 2필을 사용하였으며, 이 때 한 필의 길이는 각 50자[尺]라고 하였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12월 8일 '납폐일거행절차사기(納幣日舉行節次私記)'와 '각향행례홀기 납폐일'을 보면, 납폐의 참여 인원 및 행례, 절차 등은 납폐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5) 명복내출(命服內出)

명복내출은 궐에서 부마의 명복(命服)을 부마가에 보내는 것으로, 민간 혼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의식이다. 화순옹주 가례 때는 납폐 17일 후인 11월 25일 사시(巳時)에 거행되었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11월 25일 '명복내출절차사기(命服內出時節次私記)'를 보면 부마의 명복은 홍초포(紅綉袍)·복두(幘頭)·흑화자(黑靴子)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부마 명복은 곧 공복 차림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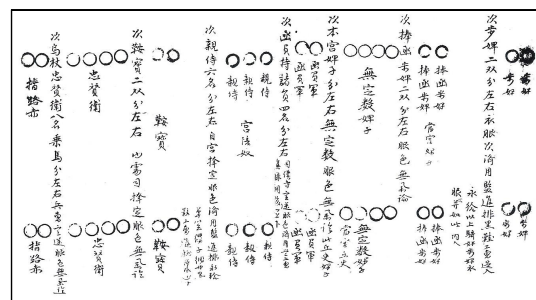
『화순옹주가례등록』 '각향행례홀기 명복내출'을 보면 의식을 진행하는 관원은 모두 흑단령을 입었으며, 부장 2명은 흑단령을 입고 칼을 찼다. 행렬이 부마가에 도착하면 주혼이 4번 절하고 명복함을 받았다. 의식이 끝나면 관원들은 흑단령에서 홍단령으로 갈아 입고 주례(酒禮)에 참여하였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11월 25일 '옹주출궁(翁王出宮)'에 의하면, 화순옹주는 이날 미시(未時)에 드디어 출궁하여 장차 친영을 치를 숙빈사우궁으로 이동하였다.

6) 친영(親迎)

친영(親迎)은 11월 29일에 오시(午時)에 거행되었다. 월성위는 옹주궁에 가서 주혼인 장계군에게 기러기를 전달하는 전안(奠雁) 의식을 행한 후, 옹주를 신부로 맞아 부마가로 데리고 오는 친영 의식을 치렀다. 친영 의식은 부마가 옹주궁으로 떠나기 전 왕실과 사당에 알리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부마는 공복(公服)을 입고 입궐하여 대전과 대왕대비전과 중궁

전에 사배, 빈궁에 재배하고 돌아온 뒤, 옹주궁으로 향하였다. 이 때 부마의 행렬에는 인로군 10명, 봉거군 20명, 인도부장 2명, 조례 1명, 집안총찬위(執寫忠贊衛), 별공작관, 본가수리감역관(本家修理監役官), 낭청, 도청, 판서, 친속위요(親屬圍繞) 등이 따라갔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9월 18일을 보면, 기러기를 들고 가는 사람인 집안총찬위는 아들 많고 풍채 있는 사람 중에서 정하게 하였고,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9월 20일 기사에 의하면 복색은 옥관자(玉貫子), 흥배를 갖춘 흑단령, 흑사피화자(黑斜皮靴子)로 규정하였고, 안장과 견마부를 갖춘 말을 내렸다.

『화순옹주자가길례시일기』에 의하면 부마가 옹주궁에 들어가면 주혼의 안내를 받으며 내중문(內中門)까지 들어오고, 내중문에서는 상궁의 인도로 본청에 올라 기러기를 상에 바치는 전안례(奠雁禮)를 치렀다. 전안이 끝난 뒤 부마는 송죽재(松竹齋)에 머물렀으며, 이 때 주혼과 위요, 집사관들에게는 선은(宣醢)이 있었다. 옹주가 나오면 부마는 가마의 주렴을 들고 기다렸다가, 옹주가 가마에 오르면 함께 출발하였다. 부마는 말을 타고 앞서 가고 옹주는 가마를 타고 따랐다. 『화순옹주자가길례시일기』에는 <Fig. 5>와 같이 친영 반차의 구성과 배치를 간단한 도식으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을 제외하고 『화순옹주가례등록』과 거의 동일하다.



<Fig. 5> Chinyeong Procession in Hwasunongjujaga-gillyesi-ilgi (Kim, 1985, p. 74)

화순옹주의 친영 예복에 관해서 『가례등록』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1847년 헌종과 경빈김씨의 가

〈Table 5〉 *Chinyeong* Procession and Costumes

	<i>Chinyeong</i> Procession		Costumes of Officials		
From Bumaga to Ongjugung	<i>Inrogun</i> 5	<i>Inrogun</i> 5	<i>Geonbok</i>		
	<i>Bong-geogun</i> 10	<i>Bong-geogun</i> 10	<i>Geonbok</i>		
	<i>Bujang</i> 1	<i>Bujang</i> 1	<i>Danlyeong</i> , sword		
	<i>Jorye</i> 1		<i>Danlyeong</i> , belt [Supplied from <i>Jeyong-gam</i>] <i>Dugeon</i> , <i>Pipae</i> [Supplied from <i>Gongjo</i>]		
	<i>Anrong</i>		-		
	<i>Gyosang</i>		-		
	<i>Chinsi</i> 3	<i>Chinsi</i> 3	<i>Danlyeong</i> , belt / <i>Aekjureum</i> , <i>Sama</i> , Pants, etc. [given by <i>Jeyong-gam</i>] / <i>Chorip</i> , <i>Mok-yeong</i> , <i>Mang-geon</i> , <i>Gwanja</i> , etc. [lent from <i>Gongjo</i>]		
Buma / <i>Gyeonmabu</i> 2		<i>Buma</i> : <i>Gongbok</i>	<i>Gyeonmabu</i> : <i>Aekjureum</i> , <i>Sama</i> , Pants, etc. [given by <i>Jeyong-gam</i>] / <i>Chorip</i> , <i>Mok-yeong</i> , <i>Mang-geon</i> , <i>Gwanja</i> , [lent from <i>Gongjo</i>]		
From Ongjugung to Bumaga	<i>Inrogun</i> 5	<i>Inrogun</i> 5	<i>Geonbok</i>		
	<i>Bong-geogun</i> 10	<i>Bong-geogun</i> 10	<i>Geonbok</i>		
	<i>Indobujang</i> 1	<i>Indobujang</i> 1	<i>Danlyeong</i> , sword		
	<i>Sangmadae</i> 2	<i>Sangmadae</i> 2	-		
	<i>Jirojeok</i> 2	<i>Jirojeok</i> 2	-		
	<i>Jip-anchungchanwi</i> 4	<i>Jip-anchungchanwi</i> 4	-		
	<i>Anrong</i> 1	<i>Anrong</i> 1	-		
	<i>Chinsi</i> 3	<i>Chinsi</i> 3	<i>Danlyeong</i> , belt / <i>Aekjureum</i> , <i>Sama</i> , Pants, etc. [given by <i>Jeyong-gam</i>] / <i>Chorip</i> , <i>Mok-yeong</i> , <i>Mang-geon</i> , <i>Gwanja</i> , etc. [lent from <i>Gongjo</i>]		
	<i>Hambujjiewon</i> 2	<i>Hambujjiewon</i> 2	<i>Geonbok</i> , boots [lent from <i>Jeyong-gam</i> and <i>Gongjo</i>]		
	<i>Bongungbija</i> (many)	<i>Bongungbija</i> (many)	-		
	<i>Bonghambobi</i> 1	<i>Bonghambobi</i> 1	-		
	<i>Bobi</i> 2	<i>Bobi</i> 2	<i>Jeogori</i> , <i>Chima</i> [Supplied from <i>Jeyong-gam</i>] / <i>Ungpidokhye</i> shoes [Supplied from <i>Gongjo</i>]		
	<i>Gibi</i> 2	<i>Gibi</i> 2	<i>Neoul</i> , <i>Cheongsangrip</i> , <i>Halui</i> , <i>Malgun</i> , <i>Jeogori</i> , <i>Chima</i> , belt [Supplied from <i>Sang-uiwon</i>] / <i>Ungpidokhye</i> [Supplied from <i>Gongjo</i>]		
	<i>Jiphyangbobi</i> 1	<i>Jiphyangbobi</i> 1	-		
	Ongju-gyoja / <i>Gyojadamjigun</i> 30 [from <i>Byeongjo</i>]		<i>Gyojadamjigun</i> : <i>Geonbok</i> [Supplied from <i>Uijang-go</i>]		
	<i>Yumo</i>		= <i>Gibi</i> 's cotumes		
	<i>Bomo</i>		-		
	<i>Sinyeo</i> (many)	<i>Sinyeo</i> (many)	-		
	<i>Jipsa-uinyeo</i> 1	<i>Jipsa-uinyeo</i> 1	-		
	<i>Jungsa</i> 1		-		
	<i>Surigam</i> 1	<i>Beolgongjakgwan</i> 1	<i>Surigam</i> 1	-	
	<i>Nangcheong</i> 1		-		
<i>Docheong</i> 1	<i>Docheong</i> 1	-			
<i>Champan</i> 1	<i>Champan</i> 1	-			
<i>Sudangsang</i> 1 (= <i>Yejochampan</i>)		-			
<i>Dongban</i> (many)	<i>Seoban</i> (many)	<i>Sibok</i> (<i>Hongdanlyeong</i>)			

(Hwasunongju-garyedeungrok, 1732; Hwasunongjujaga-gillyesi-ilgi, 1732)

례에서 동퇴연을 치르기 위해 입컬하는 경빈 김씨가 가래머리를 하고 노의와 봉대를 착용하였다는 『당미가례시일기』 ‘예복절목’의 기록에 따라, 별궁을 나서는 화순옹주의 예복도 노의(露衣)로 짐작된다. 부마는 명복인 초포를 입었을 것이다.

『화순옹주가례등록』에는 옹주와 부마 이외에도 가례에 참여하는 수행원의 수와 옷차림이 기록되어 있다. 일찍이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6년(1475) 7월 18일 기사를 보면, 기비(騎婢)와 친시(親侍)의 수를 정하여 공주의 경우 각기 6명, 옹주는 각기 4명으로 차등을 두었고, 보비(步婢) 2명, 유모(乳母) 1명은 공주와 옹주 모두 동일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전기에는 수행원에 적서에 따른 차별을 두었으나, A. Kim (2013)에 따르면 조선 후기 왕녀 반차에서는 숙

경공주의 기비를 제외하고 모든 왕녀의 기비와 친시의 인원이 동일하였다고 한다. 화순옹주 가례 때는 유모 1명, 기비 4명, 보비 2명, 친시 6명, 조례(皂隸) 1명, 견마부(牽馬夫) 1명이었으며, 『화순옹주가례등록』 ‘의복절목’과 ‘각사소장물목질’, ‘각항행례홀기 친영일’에 나타난 반차와 복식을 요약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5>를 보면 가례의 각 행사에 동원되는 인로군(引路軍)·봉거군(奉炬軍)·함부지제원(函負持諸員)·교자봉거군(轎子擔持軍)·지로적(持路赤) 등은 건복을 입었다. 조례(皂隸)는 초록 단령에 두건을 쓰고 홍면포대(紅綿布帶)를 매고 피패(皮牌)를 갖추었다. 인도부장(引導部將)은 흑단령 차림에 패검(佩劍)을 갖춘 것이 주목된다. 옹주를 호위하는 기비는

<Table 6> Costumes and Materials of *Chinsi* and *Gyeonmabu* (supplied from *Jeyong-gam*)

materials costumes	<i>Chinsi</i>	<i>Gyeonmabu</i>
<i>Gyeop-aeckjureum</i> [겹억주름; 袂腋莚音]	<i>Apdurokmeonpo</i> [압두록면포: 鴨頭綠綿布] 40Ja [자: 尺] <i>Baekmeonpo</i> [백면포: 白綿布] 40Ja <i>Jeosa</i> [저사: 苧絲] 1Jeon [전: 錢]	<i>Apdurokmeonpo</i> 40Ja <i>Baekmeonpo</i> 40Ja (for lining) <i>Jeosa</i> 1Jeon
<i>Somcheollik</i> [솜철릭: 襦帖裏]	<i>Baekjeongju</i> [백정주: 白鼎紬] 30Ja <i>Baekju</i> [백주: 白紬] 30Ja <i>Myeonhwa</i> [면화: 綿花] 1Geun[근: 斤] <i>Myeonja</i> [면자: 綿子] 1Lyang[량: 兩] <i>Beakhyangsa</i> [백향사: 白鄉絲] 7Pun [푼: 分]	<i>Baekjeongju</i> 30Ja <i>Baekju</i> 30Ja <i>Myeonhwa</i> 1Geun <i>Myeonja</i> 1Lyang <i>Beakhyangsa</i> 7Pun
<i>Sama</i> [삼아: 衫兒]	<i>Baekjeongju</i> 18Ja <i>Baekhwangsa</i> 5Pun	<i>Baekjeongju</i> 18Ja <i>Beakhyangsa</i> 5Pun
<i>Gwadu</i> [과두: 裹肚]	<i>Baekjeongju</i> 2Pil [필: 疋] <i>Baekhwangsa</i> 2Jeon <i>Myeonhwa</i> 1Lyang	-
<i>Sombaji</i> [솜바지: 襦把持]	<i>Baekjeongju</i> 15Ja <i>Baekju</i> 15Ja <i>Meonhwa</i> 1Geun <i>Myeonja</i> 5Jeon <i>Beakhyangsa</i> 7Pun	<i>Baekmok</i> 13Ja <i>Baekmok</i> 13Ja (for lining) <i>Myeonhwa</i> 1Geun <i>Myeonja</i> 2Jeon <i>Baekjeosa</i> [백저사: 白苧絲] 1Jeon
<i>Beoseon</i> [버선: 足巾]	<i>Baekmok</i> [백목: 白木] 4Ja <i>Myeonhwa</i> 4Lyang <i>Jeosa</i> 2Jeon	<i>Baekmok</i> 4Ja <i>Myeonhwa</i> 4Lyang <i>Jeosa</i> 5Ri [리: 里] ○
<i>Dae</i> [대: 帶]	-	<i>Baekmyeonpo</i> 5Ja

(*Hwasunongjujaga-gillyesi-ilgi*, 1732)

너울을 쓰고 할의(割衣)를 입었고, 유모는 기비와 같다. 보비는 저고리·치마를 입었다. 의식을 진행하는 집사관은 납채·납폐·명복내출 때와 마찬가지로 흑단령을 입었고, 『화순옹주가례등록』 ‘각항행례홀기(各項行禮笏記), 친영일(親迎日)’에 따르면 내외선운에는 홍단령으로 같이입었다. 홍단령은 친영에서 신랑 신부의 행차를 따라가는 둘러리인 위오(圍繞)의 복식에도 나타나는데 「화순옹주가례시일기」에서는 이를 시복(時服)이라 하여, 홍단령이 곧 시복임을 알 수 있다. 옹주가 부마가로 갈 때 동반(東班)은 정부(政府) 및 오조(五曹)의 참판(參判) 이상, 서반(西班)은 종친과 의빈 및 훈신(勳臣) 2품 이상이 위오가 되어 행렬을 따라갔다.

〈Table 6〉은 『화순옹주자가례시일기』에서 제용감으로 전달된 친시와 견마부 의복이다. 전체적 품목과 의차는 서로 유사하지만, 과두와 허리띠⁸⁾에서 구별되고, 특히 솜바지의 재료에서 친시가 더 고급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친시의 복장은 『화순옹주가례등록』 ‘각항행례홀기, 친영일’에서 초록목면(草綠木綿) 홑단령과 자적조대(紫的條帶)로 나타나는데, 아마도 철릭⁹⁾·액주름 위에 단령을 덧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보면 친시와 견마부의 의복은 상당부분 비슷하지만, 단령과 주(紬)로 만든 바지를 입은 친시가 다소 상위인 것으로 보인다.

7) 동퇴(同擧)

옹주궁을 떠난 친영행렬이 부마가로 도착하면 동퇴 의식이 거행된다. 동퇴는 신랑과 신부가 부부로서 마주 보고 절한 후에 술과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다. 동퇴 때 옹주가 어떤 예복을 입는지에 관해 『가례등록』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지만, So(1975)에서와 같이 필자미상의 국문소설인 「숙창궁입궐일기(淑昌宮入闕日記)」(1778)에서 원빈 홍씨가 동퇴연에서 홍장삼을 입었다는 기록¹⁰⁾, 현종 13년

(1847) 『덩미가례시일기』 ‘예복절목’에서 경빈 김씨가 동퇴연에 수식(首飾)을 하고 직금홍장삼(織金紅長衫)·패옥(佩玉)·수정대(水晶帶)·청옥규(靑玉圭)를 갖추었다는 기록을 종합해 보면, 화순옹주도 동퇴 때 홍장삼을 입고 패옥과 대·규를 갖추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화순옹주가례등록』 임자(1732) 9월 16일, 9월 28일, 10월 6일의 기사들과 ‘각사소장물목질, 제용감’ 기록에 따르면, 동퇴에 사용된 교배석(交拜席)은 황해도에서 직조해서 올렸다. 포백척(布帛尺)을 기준으로 길이 12자, 너비 2자 5치로 하였고, 가장자리에 선을 둘렀는데 상하 각 6치, 좌우 각 4치였다. 선에는 극품(極品) 자적 토주(吐紬) 30자를 사용하였다. 자적색으로 가장자리 선을 두른 것은 만화방석(滿花方席)이나 전안 시 사용하는 채화석(彩花席)에도 나타난다. 본청(本廳) 서사(書寫)가 ‘二姓之合 萬福之源’ 글자를 쓰고 어람(御覽)한 후, 강화[喬桐]에서 올라온 장인이 착문(着紋)하였다.

8) 옹주현구고(翁主見舅姑)

친영 다음날인 11월 30일에 화순옹주는 시부모를 뵈는 현구고례를 행하였다. 『화순옹주가례등록』에서 옹주가 현구고례 때 어떤 예복을 입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덩미가례시일기』 ‘예복절목’에서 경빈 김씨가 조현례 때 슈식(修飾)에 직금원삼(織金圓衫)·패옥(佩玉)·수정대(水晶帶)·청옥규(靑玉圭) 차림을 한다고 하였고, 순조 33년(1833) 『명온공주방상장례등록(明溫公主房喪禮贈錄)』 임진(壬辰, 1832) 5월 26일 기사를 보면 가례 때 입은 초록 직금단원삼(草綠織錦緞圓衫)으로써 호복(呼復)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소렴제구(小斂諸具)’에 원삼과 일습으로 봉금수흉배(鳳金繡胸背)·진홍별문대단폐슬(眞紅別紋大緞蔽膝)·진홍대단봉금수후수(眞紅大緞鳳金繡後

8) 『화순옹주가례등록』 ‘각사소장물목질’에는 견마부의 대를 홍면포대라고 하였으나, 임자 10월 15일 ‘견마부소착진배(牽馬夫所着進排)’에는 백면포대로 기재되어 있다.

9) 『화순옹주가례등록』 ‘각사소장물목질’에는 견마부 철릭이 보이지 않지만, 임자 10월 15일 ‘견마부소착진배’에는 백정주솜철릭이 기재되어 있다.

10) “무술(정조 2년, 1778) 유월에...홍씨 사배 하온대 상이 두번 읍하시고 합환주 하시고 하낙무인이 홍사를 들으신 후 상이 비로소 용안을 들어보시니 홍씨 몸에 홍초단 치마와 사초단 것막이에 칠보 팔찌에 홍장삼을 입고 공수하여 앉았으니 상궁을 명하여 정궁께 비오라하니라...”

垂)·남별문단대대(藍別紋緞大帶)·남별문단서대(藍別紋緞犀帶)가 거론되어 있다. 그렇다면 화순옹주도 일찍이 위와 같은 원삼 일습을 갖추고 현구고와 현사당 의식을 치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Fig. 6>은 화순옹주가 가례 시 입었다고 전해지는 초록직금원삼이다.



<Fig. 6> Wonsam of Princess Hwasun
(Korea University Museum (ed.), 1990, p. 63)

9) 옹주현사당(翁主見祠堂)

친영 후 3일 제인 12월 1일에 화순옹주는 시댁의 사당에 나아가 참배하였다. 『화순옹주가례등록』 '각항례의주(各項行禮儀註)'를 보면, 먼저 주혼이 사당에 고하고 향탁(香卓)의 동남쪽에 서쪽을 향해 서면, 주부(主婦)가 옹주를 데리고 양 계단 사이에 서고 옹주는 사배하고 물러났다. 현사당 때 옹주 의복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현구고 때와 마찬가지로 원삼 일습일 가능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화순옹주자가길례시일기』를 보면 본택(本宅)의 사당을 부마가[吉禮宮]로 옮겨와서 옹주가 사당 참배를 마쳤다는 흥미로운 기록을 볼 수 있다. 이후 옹주와 부마는 함께 대궁(大宮)의 사묘(私廟)와 화순옹주의 어머니인 정빈(靖嬪)의 사우(祠宇)에 예를 올린 후 다시 옹주궁으로 돌아왔다. 대궁의 사묘는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의 사당이 아닐까 짐작된다.

10) 서조현(婿朝見)

친영 후 4일 제인 12월 2일에 월성위가 공복(公服)을 입고 옹주와 함께 입궐하여 왕실의 어른들을

알현하였다. 서조현 때 옹주 의복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나, 원삼이나 당의(唐衣)를 입고 입궐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화순옹주자가길례시일기』에 따르면 서조현이 끝난 후 월성위는 다시 부마가로 돌아와 머물렀고, 다음날인 12월 3일에 부마가를 떠나 본가로 돌아갔다. 『영조실록』 영조 10년(1734) 8월 20일 기사에 따르면 화순옹주 출함(出閣)은 2년 뒤인 1734년에 행하였고, 1680년 명안공주 때 보다 출함 비용을 줄여서 검소하게 하도록 하였다.

IV. 결론

영조는 재위 초부터 사치를 금하고 근검을 실천하였고, 왕실의 혼례 물품 중 사치성이나 불필요한 물품을 제거하여 혼례에 들이는 경비를 줄이고자 하였다. 화순옹주 가례는 영조 8년(1732)에 행해진 첫 왕녀 가례이다. 영조는 이전 왕자녀 가례의 예에 따라 화순옹주의 가례를 준비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보면 왕세자를 제외한 왕자와 왕녀 가례의 규모는 비슷했던 것으로 짐작되며, 공주와 옹주의 경우도 가례 물품 상으로는 적서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마의 경우 정 1품의 공주 부마와 정 2품의 옹주 부마는 관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복식에서 재료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화순옹주 가례 물품은 숙종 6년(1680) 명안공주 가례 때를 기본으로 삼았으나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보석류가 사용된 호화 물품을 없애거나 평상복의 수량을 감축하여 옷감의 소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례 비용을 절감하였다. 이는 『국혼정례』의 옹주 의복에도 일부 그대로 수록되었다. 그러나 노의·장삼·조포와 같은 대례복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화순옹주 가례는 17세기 후반의 왕녀 가례 제도가 18세기에 와서 어떻게 변화하여 『국혼정례』로 정리되는지의 중간 과정을 보여준다.

화순옹주의 가례 절차는 『국조오례의』와 비교하면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가례등록』을 통해 『국조오례의』에 나타나지 않은 금혼령 및 부마 간택 과정,

부마 관례 및 명복내출 절차, 또한 각각의 의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과정 및 관련된 인원에 관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복식 물품과 같이 단순한 명칭의 나열에 그친 것도 적지 않아 구체적 형태나 특징, 용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살피는 데는 역시나 한계가 있었다. 향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더불어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

- Ahn, H. M. (2015). *The production and supply system of wedding costumes of Princess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lib.dankook.ac.kr/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ltemId=000000182913>
- Bumagantaekgi [부마간택기] (n.d.). in *Jangseogak* Royal Archives online. Retrieved from http://yoksa.aks.ac.kr/jsp/aa/VolumeList.jsp?mode=&page=1&fcs=&fcsd=&cf=&cd=&gb=&aa10up=kh2_je_a_vsu_81855_000&rowcount=10&listsort=%EC%84%9C%EB%AA%85
- Deongmi-garyesilgi [뫁미가례시일기] (1847).
- Gong-ongju-gilchalsi-naeha-mulpum [공옹주길찰시내하물품] (n.d.). in *Jangseogak* Royal Archives online. Retrieved from http://yoksa.aks.ac.kr/jsp/aa/VolumeList.jsp?mode=&page=1&fcs=&fcsd=&cf=&cd=&gb=&aa10up=kh2_je_a_vsu_81848_000&rowcount=10&listsort=%EC%84%9C%EB%AA%85
- Gukhonjeongrye [국혼정례] (1749).
- Gukjo-orye-ui [국조오례의] (1474).
- Gyeong-gukdaejeon [경국대전] (1484).
- Gyuhapchongseo [규합총서] (1809).
- Hwahyeop-ongjugaryedeungrok [화협옹주가례등록] (1743).
- Hwapyeong-ongjugaryedeungrok [화평옹주가례등록] (1738).
- Hwasunongju-garyedeungrok [화순옹주가례등록] (1732).
- Hwawanongjugaryedeungrok [화완옹주가례등록] (1749).
- Jinjonghyosunhugaryedogam-ugwe [진종효순후가례도감의궤] (1727).
- Joseonwangjosillok [조선왕조실록] (n.d.).
- Kim, A. R. (2013). *Materialization of a Chinyoung procession illustration of princess Bok-On's wedding based on historical dress research*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lib.dankook.ac.kr/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ltemId=00000176966>
- Kim, G. Y. (2013). *The wedding costume of princess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Garyedeung-nok*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lib.dankook.ac.kr/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ltemId=000000178157>
- Kim, M. (2011). Princess *Myeong-on's* royal wedding ceremony in 1823. *The Journal of Choson Dynasty History*, 56, 125-160.
- Kim, S. (2009). A study of the royal lady's dress in lat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the King's wedding proc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9(3), 96-108.
- Kim, S. (2010). (A) study of ritual costumes and hairstyles used in the coming-of-age ceremony for royal court ladi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5), 51-70.
- Kim, Y. H. (1985). Wedding diary of Princess *Hwasun* [화순옹주 간택일기]. *Local Culture Studies [향토연구]*, 3, 64-76.
- Kim, Y. H. (2007). *Affections in time [세월 속의 유정]: Rediscovery of Hoso regional materials [호서 지역자료의 재발견]*. Gongju, Republic of Korea: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 Kim, Y. S. (1987). *(A) study on court custom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朝 宮中風俗 研究]*. Seoul, Republic of Korea: Iljisa.
- Korea University Museum (ed.) (1990). *Masterpiece of costumes [복식류명품도록]*. Seoul, Republic of Korea: Korea University Museum.
- Kwon, H. A. (2009). *(A) study on the history an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walot*,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ltemId=000000051581>
- Lee, E. (2012). Wedding costumes of Princess on 『Deok-on-gongjugaryedeungrok』. *Korean Costumes*, 30, 68-117.
- Lee, E. & Song, Mi (2012). Study on the costumes of military officer appeared on the stone statues standing at the noblemen's tomb during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5(2), 63-77.
- Lee, G. H. (2013).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regarding King *Yeongjo's* descendants in *Janseogak* : focusing on Princesses, Euso-seson and Princes [장서각 소장 영조 자손 관련 자료의 내용과 특징: 옹주 의소세손 왕손 관련 성책 자료를 중심으로]. *Sourcebook of King Yeongjo's descendants [영조자손자료집]*, 4,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s, 35-46.
- Lee, J. M. (2009). *Procedures and garments for wedding ceremonies of prince on 『Yeoning-gungaryedeungrok』*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ltemId=000000051581>

- 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ltemId=000000054504
- Lee, M. (2015). On the marriage rituals of *Princess Hwawan*(和緩翁主) in 1749. *Journal of Korean History* [한국사학보], 58, 217-247.
- Lee, U. (2012). Procedures for wedding ceremonies of Princess on 『*Deok-on-gongjugaryedeungrok*』. *Korean Costumes*, 30, 50-65.
- Myeong-an-gongjugaryedeurok* [명안공주가례등록] (1680).
- Myeong-on-gongjubangsangjangryedeungrok* [명온공주방상장례등록] (1833).
- Myeong-ongongjugaryedeungrok* [명온공주가례등록] (1823).
- National Museum of Korea (Ed.) (2002). *Genre painting in the Joseon Dynasty* [조선시대 풍속화]. Seoul, Republic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 Ojuyeonmunjangjeonsango* [오주연문장전산고] (19th Century).
- Ongjeongsipnyeon-imjasip-iwolgillyesijacho-gantaek-wisilgi* [옹정십년입자십이월 길례시자초간택위시일기: 화순옹주자가길례시일기] (1732).
- Sangbangjeongrye* [상방정례] (1750-1751).
- Seonghosaseol* [성호사설] (18th Century)
- Seugjeongwon-ilgi* [승정원일기] (n.d.).
- Sim, S. G. (2013). Contents review of Princess wedding during King *Yeongjo's* reign [영조 대 옹주 가례의 내용 검토], *Sourcebook of King Yeongjo's descendants* [영조자손자료집], 4.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s, 47-64.
- Sinjeungdong-guk-yeojiseungram*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 So, J. Y. (annot.) (1975). Though I reach toward heavens: the original title is *Sukchang-gung-ijgwol-ilgi* [내 죽어 구천(九泉)에 이를지라도: 원제(原題) 숙창궁입궐일기(淑昌宮入闕日記)]. *the Literary Ideology* [문학사상], 31, 379-384.
- Suh, J. W. (2003). (A) comparative study on terminologies related to dress styles from the 14th to the 18th through *Nogeoldae Editions*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ltemId=00000003625>
- Suk-angongjugaryedeungrok* [숙안공주가례등록] (1650).
- Sukmyeong-gongjugaryedeungrok* [숙명공주가례등록] (1652).
- Sukjong-ingyeonghugaryedogamwangsejagaryesidocheongwigwe* [숙종인경후가례도감 왕세자가례시도청의례] (1671).
- Wangseja-garyedeungrok* [왕세자가례등록] (1696).
- Wol-inseokbo* [월인석보] (1459).
- Yeolha-ilgi* [열하일기] (18th Century).
- Yeoning-gun-gwanryedeungrokchogeon* [연잉군관례시등록초건] (1703-1707).
- Yeonryeong-gun-gwanryedeungrok* [연령군관례등록] (1706).
- Yeonryeosilgisul* [연려실기술] (19th Century).
- Yim, M. (2013). Comparative analysis on *Garye* of Princess, *Ongju* and *Gunju* in late *Chosun* Dynasty.

the Onji Studies, 33, 283-317.